

# 벤투호, 브라질전에도 '손흥민 그레비티' 적극 활용해야

포르투갈전 결승골 때 수비수 7명 손흥민 집중  
배후 침투하던 황희찬에는 별 관심 안 뿜다 실점  
NBA 스테픈 커리, 커리 그레비티로 팀 승리 제공

포르투갈전에서 마지막 순간 '손흥민 그레비티'가 빛을 발했다. 그레비티란 농구 등 운동 경기에서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마치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수비수들의 밀착 마크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동료에게 더 자유로운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2022 카타르월드컵 브라질전에서도 이 손흥민 그레비티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대회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역전 결승골 당시 장면이 축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손흥민 그레비티가 낳은 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공을 따낸 뒤 포르투갈 진영으로 드리블을 하며 질주했다. 그러자 포르투갈 선수들이 손흥민만 보고 달려들었다.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을 막기 위해 3명이 앞을 가로막았고 코너킥 공격에 가담했던 나머지 4명이 뒤에서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 사이 뒤에서는 황희찬이 질주하고 있었다. 황희찬의 옆에서 베르나르두 실바가 함께 달리고 있었지만 실바는 원래 공격수인데다가 그 순간 실바의 관심사는 황희찬이 아닌 손흥민의 슈팅 여부였다. 수비수 7명이 빙 둘러싸는 상황이 연출되자 손흥민은 옆을 돌아보고 거기에는 황희찬이 달려오고 있었다. 베르나르두 실바 역시 황희찬과 손흥민 사이가 아닌 황희찬 뒤에 있었다.

결국 손흥민은 포르투갈 수비수 달랠의 가량이 사이로 침투 패스를 넣었고 황희찬은 오프사이드 함정을 뚫은 뒤 골문 구석으로 공을 차 넣었다. 이번 골 장면은 미국프로농구(NBA) 지난 시즌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장면과 유사했다. 골든스테이트는 3점슛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테픈 커리를 활용해 수비를 한 쪽으로 몰리게 한 뒤 이를 활용해 다른 동료들이 득점을 하는 이른바 '커리 그레비티'를 자주 활용한다. 중거리슛과 드리블 돌파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손흥민이라면 축구에서도 능히 스테픈 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르투갈 역시 경기 막판 손흥민의 개인 능력을 우려해 무려 7명이 둘러싸는 기형적인 수비를 한 셈이다.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 그레비티의 위력을 절감한 만큼 한국은 16강 브라질전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측면 수비가 주전의 부상 이탈과 컨디션 난조 등으로 약화된 가운데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 그레비티로 만든 공간에 조규성과 황희찬, 이강인 등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브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최종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한국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하고 있다.

라질 수비진에 균열을 내고 골을 노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금, 은메달을 목에 건 정재원과 이승훈.

## 정재원·이승훈, 4대륙선수권 매스스타트 금·은 싹쓸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정재원(21·의정부시청)과 이승훈(34·IHQ)이 4대륙선수권대회 매스스타트 금, 은메달을 싹쓸이했다. 정재원은 4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8분15초77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스피리트 포인트 60점을 얻어 우승했다.

8분15초840으로 정재원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온 이승훈은 스피리트 포인트 41점으로 은메달을 땀다. 여자 매스스타트에서는 박지우(강원도청)가 9분15초440의 기록으로 스피리트 포인트 22점을 획득, 동메달을 수확했다. 함께 출전한 박재현(한국체대)이 9분16초570으로 4위에 올랐다.

## 이현이·조세혁, 에디허 국제 주니어테니스 단식 '우승'

이현이(15·오산GS)와 조세혁(14·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에디허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남녀 단식 정상에 섰다. 주니어 세계랭킹 199위 이현이는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에서 열린 대회 여자 16세부 단식 결승에서 튀르키예의 예제 겐자시(주니어 세계랭킹 774위)를 2-0(6-3 6-3)으로 꺾었다. 올해 월별 남자 14세부 단식 우승을 차지한 조세혁은 이번 대회 남자 14세부 단식 결승에서 키튼 헨스(미국)를 2-1(2-6 7-5 6-2)로 물리쳤다. 에디허 대회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주니어 대회로 남녀 12, 14, 16, 18세부로 나뉘어 열린다. 이현이가 우승한 16세부에서 2000년 마리아 사라포바(러시아), 2008년 유지니 부샤드(캐나다) 등이 여자부 우승한 경력이 있다. 남자부에서는 2006년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 2007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스페인)가 정상에 섰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2008년 정현이 12세부에서 처음 우승했고, 2012년 강구건이 남자 16세부 우승을 차지했다.

## 황희찬, 안정환 제쳤다...월드컵 교체 후 최단 시간 결승골

황희찬, 교체 26분 만에 골...안정환은 27분 걸려  
첫 한 대회 2경기 연속 멀티골 등 기록 만발

포르투갈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은 황희찬(26·울버햄튼)이 안정환을 제치고 역대 월드컵 교체 후 최단 시간 결승골 기록을 수립했다. 황희찬은 지난 3일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전 후반에 교체 투입돼 결승골을 터뜨렸다. 월드컵에서 한국 교체 선수가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린 것은 2006년 독일 월드컵 토고전 안정환 이후 황희찬이 2번째다. 교체 투입 후 최단 시간 결승골 기록은 황희찬이 갖게 됐다. 당시 안정환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 후반 27분에 2-1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넣었다. 황희찬은 후반

20분에 교체로 들어가 후반 추가시간 1분에 결승골을 기록했다. 따라서 황희찬이 안정환의 27분보다 1분 빠른 26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가 됐다. 한국은 최초로 한 대회 2경기 연속 멀티골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가나전에서 패했지만 2골을 넣은 데 이어 포르투갈전에서도 2골을 터뜨렸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출전한 대회에서 2경기 연속으로 2골을 성공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까지 한국은 2골을 넣은 경기가 11차례 있지만 같은 대회에서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 평균 득점에서도 1골을 넘어서었다. 1954 스위스월드컵부터 2018 러시아월드컵까지 한국은 34경기에서 34골을 넣어 평균 득점이 정확히 경기당 1골이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해 통산 득점은 37경기 38골이 됐다. 평균 득점 1골을 넘어서었다. 손흥민은 역대 한국 선수 공격 포인트 공동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 결승골을 도왔다. 이로써 손흥민은 월드컵 개인 통산 3골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4개로 늘렸다. 이는 최순호와 함께 역대 한국 선수로는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다. 최순호는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1골 2도움,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1도움을 기록해 통산 1골 3도움으로 지금까지 단독 1위였다. 김영권은 포르투갈전 동점골로 최고령 득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최종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결승골을 성공시킨 황희찬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점 2위에 올랐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전반 동점골을 기록한 김영권은 1990년 2월생으로 32세278일째에 월드컵 개인 통산 2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이는 역대 한국 선수의 월드컵 최고령 득점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최고령 1위는 2002 한일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황선홍의 33세325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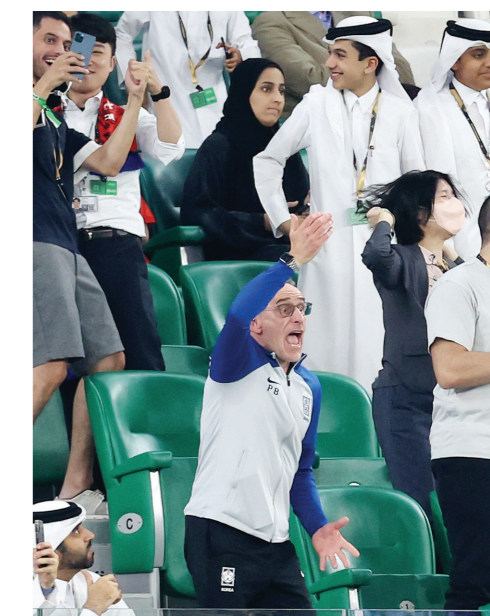
## 벤투 감독, 16강 브라질전 벤치 복귀... "FIFA 추가징계 없다"

지난달 28일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심판에 항의하다가 퇴장  
포르투갈과 최종전 관중석에서 관람...추가 징계 없어 16강전 지휘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벤치에 복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한국시간) "벤투 감독의 지난 2차전 퇴장으로 인한 추가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지난달 28일 가나와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3으로 진 뒤,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한국이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기회를 잡았는데 테일러 주심이 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벤치 대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가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벤투호는 포르투갈을 2-1로 꺾으며 포르투갈(2승1패 승점 6)에 이어 조 2위(1승1

무패 승점 4)로 16강에 진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후 벤투 감독에게 추가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16강전에선 벤치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오는 6일 오전 4시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협회는 "974 스타디움 담사보다는 휴식이 낫다는 판단으로 인해 경기장 담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벤투호는 포르투갈전 다음날 하루 동안 전체 휴식을 가졌다. 브라질은 비공개로 탐을 흘렸다.



## 한일 카타르월드컵 평행이론 눈길...8강 한일전 성사되나

조별리그 2차전서 패했다 극적으로 부활  
상대보다 못하면 안 된다 경쟁의식 발휘  
16강전 나란히 승리시 10일 8강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까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양국 경기 결과가 평행이론에 가까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이 16강전에서도 나란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이 모두 이기면 8강에서 역사적인 한일전이 성사된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독일과의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예상을 깨고 2-1 역전승을 거뒀다. 그러자 한국은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승점을 쌓았다.

기대를 모던 한일은 2번째 경기에서 주춤했다. 일본이 27일 조 최약체로 평가되던 코스타리카에 0-1로 일격을 당하자 한국도 28일 한 수 아래로 여겼던 가나에 2-3으로 졌다.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했던 마지막 경기에서 한일은 예상 밖의 승리로 극적인 16강행을 달성했다. 일본이 지난 2일 조 최강 스페인에 2-1 역전승을 거두자 한국은 3일 마찬가지로 조 1위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2-1로 역전승을 해 16강에 진출했다. 조별리그 과정에서 유럽에서 같이 뛰었던 이강인과 일본 구보가 덕담을 주고받는 등 한일 양국 선수들 사이에서는 응원이 오갔다. 하지만 바탕에 깔린 감정은 경쟁심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숙적인 양국이 상대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하겠다며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 동반 16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다. 실제로 손흥민은 포르투갈전 후 일본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김민재는 우루과이전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의 첫 경기 선전에 관해 "사실 두 팀의 경기를 보니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솔직히 조금 부러웠다"고 말했다. 경쟁과 응원이 동반된 가운데 한일 양국 모두 16강에 올랐다. 먼저 16강행을 확정지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호주는 4일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에 제 탈락했다. 이제 일본이 6일 새벽 0시 크로아티아를, 4시간 후 한국이 브라질을 상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도 나란히 선전해 승리를 거두면 오는 10일 새벽 0시 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 한일전이이자 첫 8강전이 펼쳐진다. 뉴스

## '암 투병' 브라질 축구전설 펠레 "한국전 보겠다" 선언

암 투병 중인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펠레(82)가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전 한국-브라질전을 관전하겠다고 밝혔다. 펠레는 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월드컵 브라질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펠레는 입원 중인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병원에 발행한 진단서까지 인스타그램에 첨부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요법 치료를 중단한 펠레는 증상 완화 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합병증 증세로 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레는 지난달 브라질 축구대표팀에게 "트로피를 가져오라"고 격려했다. 뉴스